

전두환 손자 단독 인터뷰 '광주의 목마름' 생생하게 전달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교과 5·18 삭제·강제동원 해법
비중 있는 보도 지역 주도지 입증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윤석열 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광주시 연계 준비·변화 등 짚어주길

진용태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물절약 인식·필요성 중요하지만
폐수 재이용 등 근본 해결책 필요

민상준 금호그룹 상무



복합쇼핑몰 긍정적 측면만 다뤄
시민들 불이익 철저히 따져주길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복지현안 시민 입장따라 제각각
약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으면

김용기 광주시 스포츠협회장



광주시에만 77개 스포츠 종목
원석 같은 선수 발굴 취재 필요

조미옥 나주 매성중 수석교사



'베푸는' 아닌 '나누는' 다문화 감성
광주일보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가치판단 없이 보도한 '층수폐지'
광주일보만 우려·문제점 보도

광주일보 제10기 1차 독자위 회의

4월 4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

광주일보 제10기 독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지난 4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독자위원회에는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을 비롯해 김윤하 독자위원장,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진용태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미옥 나주 매성중 수석교사, 민상준 금호그룹 상무,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김용기 광주시 스포츠협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제10기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4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독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니평주 기자 mjna@kwangju.co.kr

◇김윤하=올해 1분기에는 고금리·고물가·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제1야당 대표 한정 사상 첫 검찰 출석으로 격해진 여야 정쟁 등이 최대 이슈였다. 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초·중·고교 교과과정에서 삭제된 데 따른 지역민 분노, 신안 해상 어선 '침보호' 전복사고 등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광주일보 특유의 집중 제작은 '초·중·고 교과과정 5·18 삭제' 뒤로가는 민주화교육(1월 4일자 6면)에서 나타났다. 머릿기사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단 한번도 기술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 날 '5·18, 초중고 교과서 수록 확실한 방안 마련하라'(1월 5일자 1면)라는 제목으로 지역 국회의원 58명의 규탄기자회견을 다뤘고 '교육과정 5·18 삭제는 민주화 역사 부정, 들끓는 광주'(1월 5일자 6면)로 민심을 그대로 전했다.

또 '5·18 진상조사위, 광주일보에 감사패' 제목의 박스기사는 5·18 당시 광주일보 기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3600여장의 사진 등 소중한 자료를 조사위 측에 제공해 5월 진실을 알리는데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 대표지의 위상을 입증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 변제 강제징용 해법에 피해자 강력 반발'(1월 13일자 1면),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구걸외교' 중단하라'(2월 1일자 7면), "'강제동원 정부안' 절대 안돼" 국민들 함께 싸운다(2월 14일자 7면) 등 잇따라 주요 면에 비중있게 다뤄 지역 주도지임을 입증해 보였다. 다만 앞으로 한·미·일이 같이 협력하는 방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난뿐이 아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등의 제작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이철갑=광주일보는 '사라지고 있는 지방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1월 2일자 1면) 현재까지 7개 시리즈가 나왔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짧은 텀으로 집중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시리즈 주제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3가지 개혁(노동, 연금, 교육)과 관련, 광주시에 대입해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줬으면 한다.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한다'(2월 22일자 1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취재가 필요하다. 광주는 현재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아파트 건축물 높이는 열섬현상을 비롯

해 바람의 이동을 막는 등 기후위기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높이 제한 폐지는 당연스럽게도 건설업계의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게 한다.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취재해서 기사에 담아내 주길 바란다.

◇진용태=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이를 홍보하는 '역동하는 현대미술의 장으로 초대합니다'(3월 31일자 16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코로나19 해제 이후 열리는 큰 예술행사인 만큼 광주일보가 적극 나서 이를 홍보해줬으면 한다.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 작가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관심을 앞둔 시민들에게 작품 이해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뤄줬으면 한다. 또 물부족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다룬 기사도 중요하지만 폐수 재이용시설,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확대, 냉각수 배출 최소화, 노후배관 교체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담은 기사가 필요하다.

◇민상준=현재 광주시의 큰 이슈 중 하나가 '복합쇼핑몰' 유치인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다뤘다면 앞으로는 한 기업의 이익이 아닌 광주시민들에게 복합쇼핑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주목했으면 한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거대한 백화점의 존재인지 아니면 편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강남=20년 이상 복지 관련 현장 경험을 쌓아오면서 한 가지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민감한 사항을 잘 취재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 때로는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광주일보가 약자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기=광주FC가 올해 세 번 경기를 펼치면서 벌써 큰 활약을 했다. 골키퍼인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을 이기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에만 77개의 스포츠 종목이 있다. 또 이들 종목 중에는 배 곱아가며 빛에 가려진 채로 운동하고 있는 이들도 분명 있다. 알려지지 않은 원석같

은 존재를 잘 발굴해 낼 수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

◇조미옥='학교폭력, 학교 담장 넘어 법정 다툼으로'(2월 28일자 6면)의 사례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어른들이 개입해 감정적으로 발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광주일보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다같이 상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쉬웠던 부분은 '수학 1등급의 힘, 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2월 6일자 7면)기사였다. 수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정보지만 수학에 몰입하려는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이 강화돼 학교 수업의 양극화가 생겨난다. 이같은 부분을 참고해 제목 선정 시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전남 다문화학생 1만명...맞춤 교육 강화'(3월 21일자 7면)기사에서는 우리지역 다문화 가정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우리사회가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 '배편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는' 다문화 감수성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광주일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최선희=요즘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광주시 상업 40층-주거 30층 층수제한 폐지도 도심 스카이라인이 바뀐다는 뉴스일 것이다. 광주시가 건축물 획일적 층수 제한을 없애고 이를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여러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소식인양 가치판단 없이 보도하기 바쁘다. 유일하게 광주일보는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한다'(2월 22일자 1면)기사를 통해 아파트 도시 고층건물 우려를 표했다. 또한 며칠 후 광주일보의 칼럼 '무등고에서 '답하라 광주'(3월 2일자 23면)을 통해 이번 규제 해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당연한지, 개발 심의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은 왜 투명하지 못하는 것인지, 광주시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 5·18묘역 참배 및 기자회견, '할아버지가 5·18 물으면 고개 돌리고 답변 안해'(3월 31일자 1면) 기사에서도 전우원 씨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의 한을 풀어주는 과정을 생동감있게 잘 보도했다.

/정리=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